

테러리즘 위협 예방과 경호정보의 역할

백 종 갑(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김 태 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Prevention of Terrorism Threat and Role of Security Intelligence in New Terrorism

Jong Kap Baek(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Kim Tae-hwan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 Yong-In University)

Abstract

Terrorism is the use of violence, especially murder and bombing,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aim or to force a government to do something. Nowadays, instrument of mass destruction are smaller, cheaper, and more readily available. Cellular phones were used as timers in the attacks in Madrid last March. Hijacking an airplane is relatively inexpensive. Finally, the information revolution provides inexpensive means of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 that allow groups once restricted to local and national police jurisdictions to become global. Al Qaeda is said to have established a network in fifty or more countries. These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trends increased both the lethality and the difficulty of managing terrorism.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scale of Al Qaeda's attacks, the focus is properly on Islamic extremists.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limit our concern solely to Islamic terrorists, for that would ignore the way that technology is putting into the hands of deviant groups and individuals' destructive capabilities that were once limited primarily to governments and armies.

Key Words : terrorism, terrorist, counter terrorism, security, intelligence

I. 테러리즘 위협과 경호정보 역할의 정의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시대, 하이테크시대에서 삶을 영위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연결되는 공동체적인 네트워크와 상호 긴밀한 국제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고한 시민이 무차별 희생당하는 테러현장의 잔혹상과 공포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우리 안방에 전달되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노출되어 늘 사회적으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은 협상이나 논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비이성적행위로, 뉴테러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뉴테러리즘은 종교적·문명적 갈등과 충돌에 의한 맹목적 파괴주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테러리즘에 개입하면서 그 규모가 대형화·대량 살상화 되어가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요구조건과 공격주체를 밝히지 않고, 전쟁수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테러조직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분산 운영되어 포착 및 무력화가 곤란하고, 세균무기 등으로 대량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종 대량 살상무기가 테러리즘에 이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

최근 테러건수와 테러건수 당 사상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이 보다 치명적인 테러리즘을 '슈퍼테러리즘' (Super Terrorism), '메가 테러리즘' (Mega Terrorism), '매스테러리즘'(Mass Terrorism)이라는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WMD²⁾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국 WMD Terrorism 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위협은 과거의 테러리즘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였으나 뉴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어 오직 승리만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되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대상이 무차별

1) 김정현, "뉴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p.60

2)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일반적으로 chemical, biological, nuclear를 의미한다.

적이며 테러의 목적 또한 불분명한 새로운 개념의 테러리즘인 것이다. 21세기 메가테러리즘의 위협은 '하이테크 놀리지와 대량 살상무기 시대에 광적인 공격성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는데 있다. Walter Laqueur 는 테러리즘의 기본 요소로 치밀한 계획, 임기응변 능력, 소규모 테러조직, 대도시의 익명성, 그리고 준비된 자금을 들고 있다.³⁾

1. 뉴테러리즘의 위협

이러한 뉴테러리즘이 우리 사회 환경 전반에 가해오는 위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요구조건 및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곤란하다. 과거의 테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PLO 나 IRA와 같은 테러단체는 테러를 자행한 후에도 통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요구조건을 떼뻗이 밝혔으나, 뉴테러리즘에서는 테러집단 자신과 비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여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전쟁수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피해가 막대하다. 과거의 테러는 요인암살, 항공기나 인질납치, 중요시설 점거 등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내기 보다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이 강했으나, 뉴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됨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한다.

셋째, 테러조직이 그물망 조직으로 되어있어 무력화가 곤란하다. 과거의 테러조직은 수직형 체제로 되어있었으나, 뉴테러리즘 조직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된 이념결사체로서, 인터넷 비밀사이트, 전자메일, 채팅룸 및 첨단 이동통신 등을 연락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테러의 긴박성으로 인해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전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단시간에 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상황 대처시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대량살상을 기도한다. 아직까지 핵무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1995년 음진리교에 의해 동경 지하철에 살포된 사린가스나,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병 환자가 잇달아 발생된 것과 같이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3) Walter Laqueur, The New Terrorism: Fanaticism and the Arms of Destruction, October 2000 재인용

여섯째,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테러장비가 따로 없어서 방어가 곤란하다. 과거의 전통적 테러장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의 온갖 생활용품들이 테러에 사용됨으로 인해 방어와 색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9.11테러에서는 서류절단용 칼만으로 비행기를 납치하였다.

일곱째, 언론매체의 발달로 테러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대인 지금 9.11 테러에서도 미 CNN 이 24시간 전 세계에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테러범들이 노리는 공포가 여과 없이 확산된바 있다. TV와 폰카메라는 테러사건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 화면을 실시간에 전파함으로써 공포감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것을 테러범들은 노리고 있다.

여덟째, 테러사건이 대형화됨으로써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의 테러사건은 소형의 국지적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뉴테러리즘에서는 사건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그 인적·물적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통치권자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경호정보 역할의 중요성

위에서 설명한 현재 뉴테러리즘의 주요 위협요인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호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많은 경호위해 요인이 사회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시민)에게 테러위험을 가해오는 '경호위해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테러조직이나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테러전략·전술 의도 및 그 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테러목적(대상), 그리고 테러범들이 동원하는 테러수법·수단과 방법 등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의 안전보장과 더불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호행사(작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호정보 역할(기능)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경호정보는 테러에 관하여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고 중요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경호정보의 우위를 달성하여 경호행사(작전)의 성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 이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 "정보란 어떤 형태 또는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유·무형의 실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⁴⁾

또한 서먼 켄트(Sherman Kent)는 그의 저서 '전략정보'에서 "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동이다" 라고 하여 정보의 최종산물인 지식과 이 지식을 얻거나 기타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조직체와 조직체의 활동정보 그 자체를 전부 정보라고 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⁵⁾

4) 이윤식, 행정정보 체제론(서울:법영사, 1994), p. 104

5)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2005, p.10

그리고 군사적 의미의 정보는 "적·지형 및 기상에 관하여 군사 계획과 작전에 즉각 혹은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첩보를 수집, 처리(기록, 평가, 해석)하여 얻어진 결론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⁶⁾

이러한 일반적인 차원의 정보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호정보"의 정의를 정리하면 경호정보란 "경호행사(작전)계획수립을 위하여 테러에 관하여 수집된 모든 가용한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및 해석한 결과 얻은 지식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호정보 활동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즉 각종 수집수단으로부터 입수되는 경호첩보는 대부분 기록, 평가, 해석되어 해당 경호부서(부대)에 전파되며 정보의 성격에 따라 경호 위해요인은 즉시 제거 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대테러 정보활동이 요구되는 첩보 및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기만 및 위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I. 국제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및 경호환경 분석

1. 국제 테러리즘의 전망 및 경호환경

1) 테러리즘의 최근추세 및 경호환경 분석

미국무부는 2003년에 내놓은 "세계 테러리즘의 패턴" 보고서에서 최근 테러리즘에 나타나는 추세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느슨한 조직, 자체 재원 조달, 테러리스트간 국제 네트워크 형성.

둘째, 테러리즘의 동기가 종교화, 이념화(religiously or ideologically motivated)되고 있으며 급진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 조직이나 종교를 표면에 내세우는 조직들이 다양한 방법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셋째, 서로 다른 테러리스트 조직간에 군사훈련, 자금, 기술이전 또는 정치적 자문 등을 포함하는 국가간 상호 연대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여기에 WMD가 확산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강력한 테러 지원국가인 이란은 핵무기를 모색 중이고, 북한은 은밀하게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핵무기 보유를 발표한바 있다. 알카에다 조직도 생화학 무기를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육군본부, 야교6-1 정보, 2001, p. 2-1

이제 세계 국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응방식으로 테러위협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과 대테러 전쟁이 “회색전쟁”(gray war), 즉 얼굴 없는 전쟁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테러범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 형태의 테러리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테러를 감행할 수 있어 테러리즘은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컴퓨터 네트워크 망, 기능주의적 협력, 국경을 초월한 기술·자본 노동력의 결합, 교통 통신의 다변화 등으로 핵 미사일 기술과 장비 밀거래가 과거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고, 생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테러리즘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시대에는 단지 미국과 소련의 역할에 의해 유지되었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유지가 이제는 어렵게 되었으며, 초국가적인 협력과 연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향후 국제테러리즘의 전망 및 경호환경 분석

첫째, 테러조직의 변화 가능성이다. 21세기 테러의 특징은 강대국을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바로 초강대국을 겨냥한 직접적 전면적 투쟁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테러조직이 재원이 든든한 거대조직이나 테러 지원 국가와의 예측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규모화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테러지원국가의 공작원도 아닌 개인 테러리스트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전파), 무기 및 테러방법에의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테러조직의 추적이나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통적 테러조직들이 지역성을 넘어 세계성에 눈을 뜨므로써, 오세마 빌라덴과 같이 극단적 반미성향의 과격단체와 국제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 재정의 변화 가능성이다. 테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 테러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러지원국들의 후원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테러조직들은 그들의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조직과의 연계는 물론, 마약 밀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조직과 마약 범죄 조직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이러한 연계는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예가 콜롬비아 도시 게릴라였던 M-19와 메데진 카르텔의 합작품인 1985년 대법원 청사 점령, ETA와 메데진 카르텔의 연계에 의한 1989년 콜롬비아 항공기 폭파사건 등이다. 90년대에 들어 테러조직들의 재정은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 마약 밀매로 전환하였다. 콜롬비아의 FARC, 페루의 센데로 루미노소, 중동의 하마스 및 헤즈볼라의 헤로인 밀매, 아프간 텔레반의 아편 밀매 개입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마약 밀매를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들과 연계하여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21세기 테러의 이러한 현상은 결국 '테러'와 '범죄'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90년대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군사화는 테러, 범죄, 전쟁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면서 테러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 불일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념의 불분명은 곧 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⁷⁾

셋째, 여전히 알 카에다와 이슬람 과격세력이 국제테러를 주도할 것이고 그들의 주요 표적은 미국이 될 것이다.

넷째, 민족과 종교적 갈등에 따른 테러의 지속 가능성이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이념적 테러리즘이 쇠퇴하고, 뿌리 깊은 민족적 종교적 테러리즘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래된 민족 갈등(북아일랜드, 바스크족, 팔레스타인,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최근의 종족 갈등(위그르족, 티모르족)문제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민족주의-분리주의-민족통일주의 등과 맞물려 테러의 주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동과 태평양 연안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고 있고, 구소련연방의 해체에 따라 각 국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와, 중앙 아시아의 불안정에 따른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에 기인한바 크다. 실제로 소련의 이념적 지배의 공백을 이란이 종교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이란은 터기, 수단, 바레인, 남아프리카, 알제리아,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등지에 그 모습을 드러낸바 있다(Thomas B. Hunter). 팔레스타인 테러단체들이 대(對)이스라엘 테러 투쟁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한 스페인과 러시아 연방을 비롯하여 네팔과 콜롬비아 등지에서의 반정부 좌익테러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념 문제도 종교의 영향 아래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이 아니다. 터키의 혁명 인민자유당 전선, 페루의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인도의 낙살당원(Naxalites)등과 같은 좌익운동 단체들과 더불어 동물 보호단체나 환경 운동단체들과 같은 이슈그룹들도 정치적으로는 좌파적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미국의 KKK, 영국의 Combat-18(C-18) 및 스킨헤드 단체들은 우익 운동의 핵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테러 목표와 방법의 변화 가능성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와 외교 군사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등으로 테러분자들의 목표와 방법상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경제 기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교통시설, 은행 및 관광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테러분자들은 정보에의 접근 및 획득, 선전, 기금 모금, 통신수단, 그리고 작전계획의 전파수단으로 인터넷을 빈번히 사용할 것이다.

총기와 폭탄은 테러공격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될 것이다. 차량폭탄은 특히 위협적인 대량 살상, 목표의 무차별성과 더불어 제조와 운반의 용이성, 다량의 운반능력과 높은 살상력, 인터넷

7) 조성권, '9월 테러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정세와 정책 2001, 2월호, 세종연구소

상에서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고, 획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자살테러는 중동과 스리랑카 등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여성 테러리스트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방사능 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예상된다. 대량 살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강화된 보안 조치로 인해 새로운 공격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테러분자들에게, 또는 좌절과 무기력감으로 자포자기 상태인 테러조직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들 생화학 무기나 방사능 물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대테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15대 재앙 시나리오' <표 1>를 보면 12개 테러관련 시나리오 중 생물학 테러와 화학테러가 4건씩이고, 핵폭탄 테러, 폭탄테러, 방사능 테러와 사이버 테러가 각각 1건씩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자연재해(지진, 질병, 허리케인)가 3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생화학 테러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2-1 > 美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15개 재앙 시나리오⁸⁾

순위	재 앙 내 용	순위	재 앙 내 용	순위	재 앙 내 용
1	핵폭탄 테러	6	화학테러(화학시설물)	11	방사능 테러
2	생물학테러(액화탄저균)	7	화학테러(사린가스)	12	폭탄테러
3	생물학 질병	8	화학테러(염소탱크폭발)	13	생물학테러(탄저균)
4	생물학 테러(폐렴균)	9	자연재해(지진)	14	생물학테러(구제역)
5	화학테러(발포제)	10	자연재해(허리케인)	15	사이버테러

핵무기를 둘러싼 경비수준이나 핵무기가 테러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른 각국의 거부감 등을 감안하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이들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용이성 및 친밀성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주요 테러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 테러리즘의 전망 및 경호환경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 테러리즘의 특징과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극단주의자들의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요구조건의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테러범 활동은 목적을 정의하기 어렵게 되고 목표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8) 조선일보, 2005년 3월 17일

9) 윤우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02.1.p.78-79

둘째, 테러가 분쟁의 최상위 성격인 전쟁의 한 형태로 나타나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기도함으로써 피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셋째, 테러조직이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조직 중심이 다원화되어 조직의 무력화가 어렵게 되었다.

넷째, 테러장비가 폭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보호되고 있는 비행기, 주유소 및 기름, LPG 운반차량 과 가정용 LPG 통 등 시설이나 장비로 그 지배권만 탈취하면 기존 장비 이상의 대량의 엄청난 살상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예방이 곤란해졌다. 또한 이렇게 획득된 장비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섯째, 화생무기는 주로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에서만 사용되었는데 1995년 일본 옴 진리교의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을 시작으로 9. 11 테러사건 직후 사용되었던 탄저균 테러는 이러한 화생무기가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라는 것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실제로 미국의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백색가루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

여섯째, 현대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테러현장의 생생한 장면이 실시간 전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테러범들이 노리는 공포가 최고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테러범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러한 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테러범들은 인질이나 무고한 시민을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여 이를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다수에게 보다 큰 위협과 고통을 안겨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치적인 협상과 함께 테러범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테러목표에는 테러집단이 기도하는 하나 이상의 복합적인 전략 전술이 숨겨져 있다. (기만, 양동 및 양공작전 등) 즉, 경호 경비가 삼엄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테러목표를 선택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이 운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공장소를 테러목표로 선택하여 용이하게 그들의 전략 전술을 사용 한다. (예,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사건 등).

2 . 9.11 이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정책분석

9. 11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 테러리즘 정책은 그 내용면에서 9. 11이전 클린턴 행정부의 그 것과는 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부시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성향과 특성 그리고 이른바 전신내각으로 일컬어지는 내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9. 11 이후 전개된 부시행정부의 주요 대테러리즘 정책으로는 대테러리즘 전쟁수행, 법적 대응체제 강화, 정보기관의 암살 합법화, 그리고 대테러리즘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 11월 대테러 바르샤바회의에서 “어느 국가도 테러와의 전쟁에 중립이 될 수 없다.” 라는 부시대통령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테러리스트를 관용하는 국가나 단체들을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부시 독트린이다. 아프칸 전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시의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은 2002년 1월 연두교서를 거쳐 9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토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 국토안보, 경제안보라는 3대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틀 안에서 부시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테러리즘 전쟁 수행

냉전기 동안 미국은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을 전쟁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의 경우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9. 11 이후 미 군부는 인식을 달리하였다. 처음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도 전쟁의 하위 단위로 공식화한 것이다.

2001년 12월 한 군사학교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였다. 후에 이 발언은 장래 화생방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제 테러리즘과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테러지원국을 동일시하고 이들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이 발언들은 결국 미국의 테러리즘 관련 국방 및 군사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테러지원국과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은 테러조직이 활동하는 국가들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콜롬비아 처럼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의 경우 해당 국가에 군사물자를 원조를 하였다. 또 동남아 국가들 처럼 세계적인 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활동하는 이슬람 테러조직의 경우 해당국가에 미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였다. 실제로 미 국방장관은 필리핀 반군 소탕을 위한 대테러 훈련의 목적으로 30명의 미 군사고문단이 파견되었음을 시인하였다.¹⁰⁾

한 마디로 이것은 테러조직과의 확전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테러조직들의 주요 활동자금이 마약 밀매에서 획득된다는 정보에 따라 미 군부는 가까운 장래에 ‘테러리즘-마약밀매 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외 군사전력을 구사할 것이다.

2) 법적 대응체제 강화

부시행정부의 또 다른 주요 대테러리즘 정책으로 법적 대응체제 강화를 들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4개의 주요 법안과 대테러 관련 8개의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들 국내법의 핵심 내용들

10) 미 정부 국내외 테러와의 전쟁 홍보 강화, 연합뉴스, 2001. 10. 29

은 첫째, 테러조직 및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테러 재정관련 자산 동결조치이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적 목적은 종교 및 기타 합법적 단체 등으로 위장한 테러 조직들에게 현금을 불법화 하는 것과 그러한 테러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대테러 관련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개편은 대테러 관련 총괄 책임을 지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설립이다. 이 기구는 그동안 22개로 분산된 테러관련 연방기관들을 중앙 통제식으로 결합시켜 총괄적으로 감독한다. 이 기구의 주요 임무는 운전면허 취득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 외국과의 범인 인도협정 확대, 관련 주 및 연방법 개정 촉구, 연방정부가 국가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대통령이 미국내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 생물학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비축의 확대 등이다. 특히 실질적 대테러관련 법집행 기관인 FBI의 경우 90년대 이후 최우선 과제가 방첩이었는데, 이제는 대테러리즘이 최우선 과제로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 FBI 뮐러 국장은 중앙통제식의 새로운 테러지휘팀(Special Agents-in Charge: SACs)구성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FBI 마약반의 약 50%를 대테러 담당으로 이전 배치하였다.¹¹⁾

셋째,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FBI와 같은 법집행기관의 권한 강화이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특이 점은 [대테러리즘 정보 및 예방체계안]이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시민군 이니셔티브(Citizen Corps Initiative)]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다. 이것의 목적은 의심 가는 테러리스트들의 동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신고하는 비 시민권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3) 정보기관의 암살 합법화

또 다른 대테러리즘 정책으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정보기관에 의한 암살을 다시 추진하였다. 9. 11 이후 CIA 암살정책의 허용에 대한 논쟁이 급속히 정치쟁점화 되었다. 먼저 체니 부통령은 ‘더러운 전쟁’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였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테러리즘 전쟁에 비 재래식 무기 및 전술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합참의장도 아프칸에서 CIA의 독자적인 비밀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아프칸 전에서 CIA에게 처음으로 무기 사용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부여하였고, 반정부 및 반미 성향의 아프칸 군벌살해를 허가 하였다고 보도하였

11) <http://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자 2005. 11. 25

다.12)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CIA에 의한 암살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테러리즘 외교의 강화

미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제테러리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다국적 공조체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외교 강화는 9. 11 이전 클린턴 행정부의 다국적 협력의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격과 강도 면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강경한 것이었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다국적 협력은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의미했지만, 부시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외교는 테러리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가지를 놓고서 국제사회를 이른바 줄서기를 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대테러리즘 국제연대를 공고화하기 위해 9.11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즘 관련 UN 총회 및 UN 안보리 결의안, 테러리즘 관련 자금동결을 위한 국제협력, 테러리즘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 가입 추진 등의 대테러리즘 외교를 적극 추진하였다.

21세기 뉴테러리즘이 화생방 무기를 이용한 슈퍼 테러리즘의 양상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부시 행정부는 [화생방 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가칭)]과 [사이버 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3. 영국 G8 정상회담과 테러리즘 상황분석

1) G8 정상회담 중 허점 드러난 테러 대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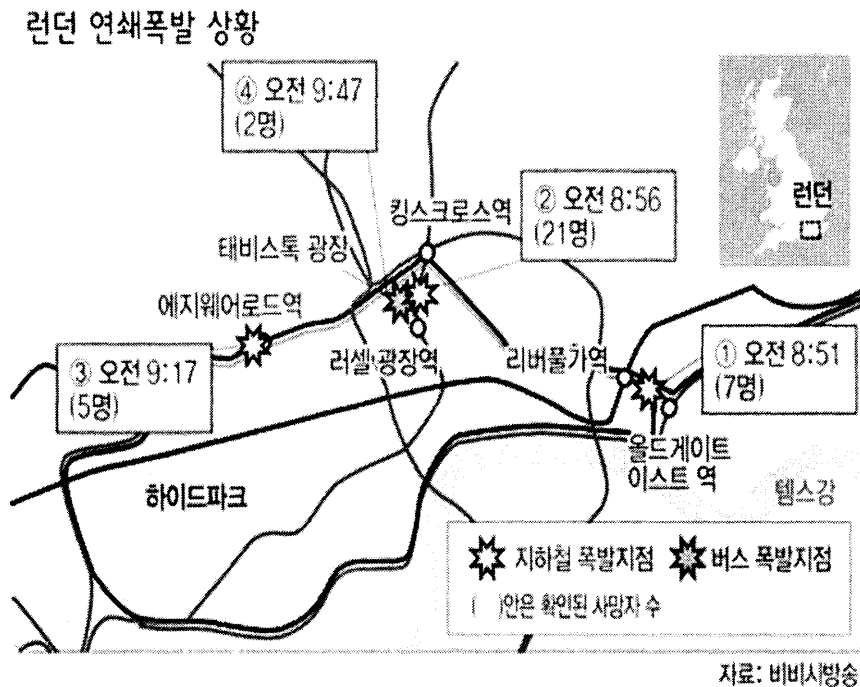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 주력군인 영국은 오랫동안 테러에 대비해 왔으나 끝내 지난 7월 7일 허를 찔리고 말았다. 테러조직의 공격수단이 워낙 다양해진데다, 주요8국(G8)정상회의 경비 집중으로 런던에 치안 공백이 생긴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영국 정부는 주요8국(G8) 정상회의 기간(6~8일) 10만 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회의장 소인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 작전을 펼쳤다. 덕분에 G8 회의장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뀌었으나, 테러 조직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을 증오하는 알카에다 등 이슬람단체들이 지하에서 숨을 죽이고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런던 도심에서 연쇄 테러를 감행 했다.¹³⁾

12) CIA 반정부 반미 아프칸 군벌 살해기도, 연합뉴스, 2002. 5. 9

13) 조선일보, 2005. 7. 8

특히 영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위협이 강화됨에 따라 대응책도 강화해 왔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경보수준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 2월 세인트 앤드루스대학 연구팀은 2년간의 연구 끝에 영국의 교통시스템에 보안상의 허점이 있다는 보고서까지 낸 상태였으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안보 소식통들 사이에서 위협이 현존하고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5월말 테러 위협 수준을 “전반적으로 심각”에서 “상당 수준”으로 낮췄다.



< 그림2-1 > 영국 런던 폭탄테러 상황

2) 테러 결과 상황분석

① 테러경보 수준을 ‘심각’ 에서 ‘상당수준’ 으로 최근에 낮춰.

“사전경고 받고도 못 막았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영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의 공격이 “현실적이고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9억5천만 파운드였던 안보 관련 예산을 2004년 15억 파운드로 늘려 왔다. 2007년엔 21억 파운드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 런던 경찰청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영국의 심장부인 런던의 테러 발생에 대비해 지금까지 수차례 대테러작전을 펼쳐 수십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고 폭탄 원료를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② 사전에 감지했나?

영국 경찰이 런던 연쇄 테러에 대한 사전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사전경고 유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알카에다 집단이 인터넷을 통해 영국을 공격할 계획을 수차례 밝혔으며, 영국 보안 당국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은 그러나 영국경찰이 사전경고를 언제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관련 민간소식지인 <백악관 불리틴>과 <에이피통신>, 미국 <시비에스방송> 등도 영국 경찰당국이 테러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경고를 받았고 이를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통지했다고 7월 7일 보도했다. <백악관 불리틴>은 런던 경찰국이 이스라엘 대사관 보안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 테러발생 수분 전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으며,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폭발이 발생한 지하철역에서 한 구간 떨어진 호텔에서 열리는 경제회의에 참가하려다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 대사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사전경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영국 경찰과 정보국 MI5는 아무런 사전 경보나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③ '핸드폰 카메라' 로 생생한 현장 참상 전 세계에 실시간 전파.

최근 굵직한 테러 사건과 동남아를 휩쓴 지진해일 등에서 통신수단으로서 큰 구실을 한 휴대전화는 이번에도 사건 현장의 모습을 전해주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7월 7일 아침 런던 지하철 테러 발생 시점 당시 현장에 있던 출근자들이 갖고 있던 카메라폰으로 촬영해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을 장식하고 있다.

자욱한 연기와 희미한 불빛 속에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승객들을 담은 사진이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웹사이트로 전송된 때는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현장에 갇혔다가 탈출한 시민들은 터널 밖으로 나오는 험난한 과정을 사진으로 올렸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도 불에 탄 버스의 모습,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생생한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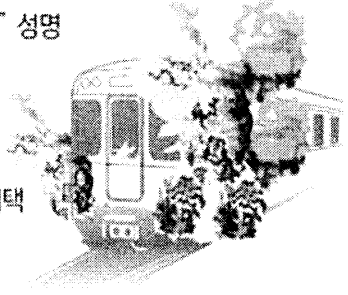
휴대전화는 2001년 9·11 테러 때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쓰나미) 때에는 자연재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 구호의 손길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테러조직은 그들의 테러목표 설정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테러범들은 이렇게 실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처참한 참상을 알리고자 사전에 기도했던 것이다.

④ 시간대별 테러 진행상황

시간대별 진행 상황

오전 8:51	리버풀가역 인근 지하철 차량 폭발, 7명 사망
- 8:56	러셀광장역~킹스크로스역 사이서 지하철 차량 폭발, 21명 사망
- 9:17	에지웨어로드역 구내서 지하철 차량 폭발, 5명 사망
- 9:33	리버풀가역과 올드게이트이스트역 폐쇄
- 9:47	태비스톡광장서 2층버스 폭발, 최소 2명 사망
- 9:49	전체 지하철 노선 폐쇄 발표
오후 12:10	블레어 총리 "폭발은 명백한 테러" 성명
- 1:07	블레어 총리, 런던으로 귀환
- 1:35	런던 지하철 폐쇄조치 발표
- 4:35	버킹엄궁 조기 개장
- 5:53	유엔 안보리, 테러 규탄 결의안 채택
- 6:13	사망자 37명 확인 발표
- 9:05	블레어 총리, G8 정상회의 복귀



3) 런던 테러발생 주요 문제점(원인)분석 과 대응책

① 영국 정보기관 특히, 런던 경시청은 테러범(알카에다)들이 기도했던 테러 공격 의도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정보분석에 실패한 것이다.

G8 정상회담 장소에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 경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런던 주요 도심(지하철역 광장 등)은 경비의 허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테러범은 경비가 강화되어있는 정상회담장소 보다 군중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역 광장을 선택한 것이다. 테러범의 테러대상은 영국이었고, 영국 국민의 철군 여론을 형성(테러범들은 이라크에서 영국군 철군이 주요 목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G8 정상 회담장소에서 테러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들(알카에다 집단)이 입게 될 엄청난 불이익(국제적인 연대에 의한 대테러 대응)과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여론의 악화에 의한 그들의 고립을 의식했을 것이다.

즉 알카에다 테러집단은 고도의 전략적인 테러목표(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테러범들이 기도한 전략적인 공격목표를 영국 보안기관과 런던 경시청이 간파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알카에다 테러집단은 영국 보안기관과 런던 경시청을 기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들의 테러공격을 성공시킨 것이다. 따라서 알카에다 테러집단의 런던 지하철역 광장 테러는 최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테러조직의 기만전술 사용, 알카에다는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 수차례 영국을 대상으로 테러공격을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영국 보안 당국도 테러 가능성을 사전

고 있었으므로 알카에다 테러집단은 효과적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테러장소와 시간을 기만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테러범들의 전략적인 테러기도(의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즉 테러범들의 역정보와 허위정보, 테러의 목표와 장소, 시기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첩보 및 정보를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집단의 입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요소를 대입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기법과 시스템(인적구조, 제도적 장치, 정보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력체제, 정보의 공유 활용 등)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② 영국정부의 테러위협 수준 하향 조정.

올해 2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연구팀은 2년간의 연구끝에 영국의 교통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였고, 영국 안보소식통들 사이에 테러위협이 현존하고 심각하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영국정부는 올해 5월말 테러위협 수준을 “전반적으로 심각”에서 “상당 수준”으로 테러위협 수준을 오히려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켰고 보안기관이나 경찰의 테러발생 위협정도를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및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즉, 국가 안보(정보)기관의 잘못된 대테러 정책결정은 대테러 경호·경비의 공백을 초래하게 됨으로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잠재되어 있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그 결정은 인접국의 테러 발생상황에 즉각 대응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행상의 탄력성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지속적으로 테러범을 추적하여 그 본거지를 소멸시키는 국제적인 공조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③ 사소한 테러관련 첩보나 정보도 중요시하여 획득즉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력과 전문 연구 조직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IV. 최근 국제테러의 대상 및 수법·수단 분석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을 대상으로 테러대상과 수법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테러 대상별로는 시설물 폭파테러가 1,694건(80%)이고, 인질납치 및 요인암살 테러가 345건(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지하철·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4-1 〉 테러 대상별 발생건수

구 분	항 공 기		선 박		대 중 교 통	시 설 물		인 질 납 치	요 인 암 살	기 타
	폭 파	납 치	폭 파	납 치		점 거	폭 파			
2004년 (988건)		1	1		1	4	793	115	50	23
05.8현재 (1,137건)	1			1	24	5	901	97	83	25

테러 수단별로는 사제폭발물이 741건(35%), 총기 등 무장공격이 718건(34%), 차량·자살 폭탄테러가 397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량폭탄·자살폭탄 테러가 점증하는 추세이다.

〈 표4-2 〉 테러 수단별 발생건수

구 분	무 장 공 격		사 제 폭 발 물	차 량 폭 탄	자 살 폭 탄	기 타
	총 기 류	중 화 기				
2004년 (988건)	293	51	359	98	62	125
05.8현재 (1,137건)	316	58	382	139	98	1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대중 교통수단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14) 국정원, 최근 테러대상, 수법, 수단분석, 2005. 8월

1. 대상별 국제테러수법 및 위협분석

- ① 항공기 테러를 기도하기 위해 테러범들은 신발등 신체 부착물에 폭발물을 은닉하거나 휴대 수화물에 폭발물을 은닉하여 기내에 반입을 시도하고, 또한 낮은 수준의 보안검색(금속탐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주머니칼 등으로 승무원·승객을 위협하거나 은닉 폭발물로 위협하여 항공기를 납치 해왔다. 특히 지난 9.11 테러에서는 항공기 기체를 테러 무기화하여 건물 등에 충돌하는 등 테러수법이 상상을 초월하여 무차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② 선박테러에서는 적재물에 폭발물을 은닉하여 폭발하거나, 승객으로 승선후 선박을 장악하여 납치하기도 하고, 폭발물 적재 선박을 테러 대상에 충돌시켜 폭발하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게 동원되고 있다.
- ③ 대중교통 테러에서는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아토차역에 진입하던 통근열차에서 휴대폰을 시한장치로 이용한 사제폭발물이 4-5분 간격으로 10개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부상했으며, 또한 2005년 7월 7일에는 영국 런던 리버풀·러셀스퀘어·엡트웨어 역사 인근에서 운행중이던 객차가 사제폭발물에 의해 폭발되고, 이어서 런던 타비스톡 광장으로 진입하던 2층 버스에서 사제폭발물이 폭발하여 56명이 사망하고 650여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테러를 자행했다.
- ④ 다중 이용시설 테러사례는 러시아 북오세티아 초등학교 인질사건에서 2004년 9월 1일 체첸반군 30여명이 초등학교에 진입하여 교사·학생등 1,200명을 인질로 당국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테러범 자폭으로 344명이 사망·700여명이 부상했고, 또한 2002년 10월 23일 체첸반군 50여명이 모스크바시 [뚝 꿀뜨리] 오페라 극장에 폭발물을 몸에 지니고 충기를 난사 후 진입하여 극장폭파를 협박하다가 러시아 당국이 특수가스를 분사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질 117명, 테러범 49명 등 총 168명이 사망하는 테러를 감행했다. 또한 시설물 파괴를 통한 테러에서는 이라크 송유관 파괴와 발전소 연료 공급 송유관을 파괴하여 이라크 전 지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 주재 공관이나 호텔 등을 폭발하여 정치적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 ⑤ 주요인물 테러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은 총 142건으로 37개국 34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납치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군인·외교관·언론기자·트럭운전자·사업가 등 민간인이 323명(95%)으로 대부분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국가인 피랍자가 173명(50%)을 차지하는 등 국적 종교 등에 관계없이 기회가 되면 무조건 납치하는 추세에 있다. 요인암살은 레바논 [하리리]총리와 체첸[카디로프]대통령·체첸 전 대통령[안다르비예프]가 차량으로 이동 중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2. 국제테러수단 및 위협분석

1) 무장공격 테러

① 총격테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총기류에는 최근 동남아·동유럽 등지에서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불순분자에 의해 요인위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98년 프랑스 경찰에 의해 적발된 동구권에서 제작된 22구경 [만년필형 위장권총], 93년 불가리아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발명된 밀링머신으로 총열 확장시 실탄 발사용으로 개조가 가능한 [열쇠고리형 위장권총], 중국 '맹사성 유한공사'에서 제작되어 미국 일본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고무탄 사용시 4m이내·철탄 사용시 8m이내에서 인명살상이 가능한 [라이타형 위장권총], 미국 '퀵실버매뉴팩처'사에서 제조되어 2003년까지 온라인 판매만 하였으나 현재 암시장에서 거래중인 것으로 추정되는[잭나이프형 위장권총], 97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검거된 북한 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이 소지한 것으로 볼펜으로 위장한 요인암살용[볼펜형 독침], 유아용 카세트 및 전통공예품 등에 도검류를 은닉하여 항공기 기내로 반입을 시도하다가 미국에서 적발된 [장식품형 위장총] 등은 테러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가 간편하고 은닉하기에 용이한 위장총기류 등이 우리 주변에 위협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② 휴대용 미사일 테러용으로 2003년 11월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가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륙하는 이스라엘 항공기에 발사한바 있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 Man Portable Air Defence Systems]가 있다.

2) 사제폭발물 테러

테러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제폭발물 종류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정용 용품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은닉·위장형 사제폭발물 종류에는 운동화 및 신발류 밑창에 은닉하여 폭발토록한 [운동화·신발류폭탄], 얇게 성형된 플라스틱 폭발물을 부착한 [양발 폭탄], 축구공 내부에 은닉된 [축구공 폭탄], 휴대가 간편한 서류가방 형태로 제작되어 육안검색만 실시할 경우 휴대용 전자장비로 인식될 수 있어 위장에 적합한 [각종 가방류 폭탄], 소화기에 폭발물과 파편효과를 위한 금속물질을 은닉하여 제조한 [소화기 폭탄], [TV수상기 폭탄], [비디오카메라 폭탄], [비디오테이프 폭탄], [비디오케이스 폭탄]이 있다.

휴대폰을 시한장치로 활용하여 알람이 울리면 폭발토록 제작하여 2004년 1월 19일 스페인 열차 폭탄테러에 사용한 [휴대폰 폭탄], 파편효과를 위해 못과 폭약 등을 삽입한 [맥주캔 등

생필품 폭탄), 책자내부에 폭약을 넣어 개봉시 폭발토록 제작된(우편·소포폭탄), [배낭폭탄], 알람시계 기능을 사제폭발물 작동 스위치로 활용한(알람시계 폭탄), [문 개폐기·차량용 경보기 폭탄], [쓰레기통 폭탄], [LPG용기 폭탄], [파이프 폭탄], [인형등 완구류 폭탄]이 있다.

길가에 쓰레기 더미 등으로 위장하거나 신호등·표지판·전기시설물 등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지물에 폭발물을 은닉하여 폭발시키는 폭탄 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IV.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경호정보 분석

테러리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그 경제적인 피해액이 330억 달러에 달하는 최악의 9.11 테러사건과 이에 따른 대테러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고통과 슬픔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 또한 결코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 네트워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대응마저도 결코 낙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해 왔고, 그들이 직접 나서 테러리즘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나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명되어 왔으며, 새로운 테러리즘의 유형으로 간주되는 생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정책으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6자 회담과 맞물려 북미관계가 긴장국면에 돌입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테러리즘 노선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다.

또한 전 세계 테러리스트 단체의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외교적인 위치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슬람 과격단체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비전투원 중심의 평화 재건부대를 파견하는 등 반 테러리즘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과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보복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알카에다는 전 세계에 걸쳐 이슬람 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추진해 왔고, 실제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는 초국가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거주가 늘었고, 단순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테러리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으로 구분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이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시 북한이 대남 테러리즘을 그들의 대외정책 주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등장 이후 해외 테러리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당 산하 대남 담당비서의 지휘 하에 통일 전선부, 연락부, 조사부, 대외정보 조사부를 두고 해외 테러리즘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¹⁵⁾ 국제조직에 의한 대규모 테러활동을 통해 국제행사를 방해하거나 대미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여 국내 주요 미군 군사시설 및 외국인 시설물, 요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한 내 고정간첩이나 친북 지파 조직에 내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령통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005년 11월 24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1년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총 670건의 대남 지령통신이 수신되었다고 밝혔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2년에는 190건, 2005년 8월 말까지 95건이 수신됐다. 이 기간 간첩 검거 건수는 2001년 4명, 2002년 2명, 2003년 3명, 2004년 2명, 2005년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 화해, 협력정책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리즘의 가능성도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이 테러리즘을 자행한다면 그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¹⁶⁾

15) 전종렬, "국제테러리즘과 연계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합동참모대 연구보고서, 2002, P. 38

16) 최진태, "국제테러리즘의 역사적 교훈과 대테러 발전방안", 전개서, PP.405-406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PP.218-219

첫째, 북한이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다.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 사건, 1986년 김포공항 폭파사건, 그리고 1987년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자체 내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 공작요원들을 이용한 대남 테러리즘이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북미 관계개선으로 체제 보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시도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형성된 반(反)테러리즘의 국제적 분위기와 여론을 감안할 때 테러리즘을 그들의 전략, 전술로 활용하는데는 신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한 테러리즘이다. 북한은 과거 중동, 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게 테러리스트 훈련단 및 고문관을 파견하여 테러리즘 기법에 관한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아울러 테러리스트 단체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리전 양상의 테러리즘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내 좌경 세력들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다. 급진 좌경세력들은 폭력에 의한 비판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고립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좌경세력들의 뿌리가 아직도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지하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에 따른 국민적인 국론분열 현상은 향후 국내에 있는 좌경세력들을 이용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2.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9.11 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보복할 것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반 테러리즘 국제연대의 참여로 인해 빈 라덴의 조직인 알 카에다 소속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또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조직원들과 알 카에다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진출 및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국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을 꿈꾸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한국의 노동정책이 불비한 가운데,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로 출국을 당하거나, 아예

17)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전게서, P. 9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이 반한(反韓) 단체를 조직하여 한국에 대한 테러리즘을 계획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 폭력조직들이 한국기업과 호텔 등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이 국정원 국회보고에서 밝혀지고 있다.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홍콩 중국의 삼합회 등 세계 3대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에서의 활동 거점 확보를 위해 국내 호텔과 기업체를 인수하는 등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정보원이 2005년 11월 24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국제범죄 실태에 따르면 조직원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삼합회의 경우 주로 국내 마약 밀매와 밀입국을 알선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홍콩 삼합회 조직원 4명을 이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야쿠자는 작년 7월 조직원인 재일교포 명의로 국내의 한 호텔을 인수했다. 야쿠자 최대 파벌인 야마구치구미 등 8개 조직이 국내 범죄조직인 부산 칠성과 등과 결탁해 금융·부동산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러시아 마피아의 경우 마가파, 야쿠트파 등 범죄조직이 한국인과 합작하여 국내에 수산업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수산물 거래에 개입하면서 극동 지역의 20개 조직이 국내에 진출중이다.

이러한 세계 3대 국제범죄조직은 한국에서 이미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은 우리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국제범죄조직은 국내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폭약과 같은 위협대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3.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

테드거 박사가 인간의 폭력적 행위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위해 인용한 '상대적 박탈감 이론'에 의하면 한국과 같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근대화 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여 결국 국가의 능력을 넘어섬으로써 기대와 능력간의 격차에 의해 분노와 좌절감을 겪게 되고, 중국에는 이러한 열망적 박탈감을 폭력행위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국민의 가치 기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국민의 기대감과 충족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폭력, 즉 테러리즘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겪은 사람들이 단독 혹은 조직을 형성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행하였을 때, 비록 그들에게 뚜렷한 정치적 목적은 없어도 그로 인한 피해와 공포는 더욱더 증폭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업자가 점차 늘어나고, 개인 파산에 직면한 계층, 증가 일로에 있는 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⁸⁾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호 겹쳐지거나, 기존의 사회 갈등과 결합되는 경우 테러리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예컨대 경제발전에 있어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치력 또는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도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테러리즘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세계화의 급물살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이 반미감정, 반일감정 등을 앞세워 경제적 민주주의와 결합되면서 국내 정치인 또는 관공서 및 국내 외국인이나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V. 테러리즘에 대한 경호정보의 역할 및 정보분석

1.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경호정보의 역할

지금까지 국제테러리즘 및 한국에서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경호환경을 분석해 본바와 같이 오늘날 뉴테러리즘이 우리 사회 환경 전반에 가해오는 위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¹⁹⁾

- ① 요구조건 및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곤란하다.
- ② 전쟁수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피해가 막대하다.
- ③ 테러조직이 그물망 조직으로 되어있어 무력화가 곤란하다.
- ④ 테러의 긴박성으로 인해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⑤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대량살상을 기도한다.
- ⑥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테러장비가 따로 없어서 방어가 곤란하다.
- ⑦ 언론매체의 발달로 테러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
- ⑧ 테러사건이 대형화됨으로써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 이황우, "Quasi-Terrorism의 원인과의 예방", 대테러연구 제7권, 치안본부, p.207

19) 이두석, "국제테러리즘 분석 및 전망, 2005. 6월, p. 13

이러한 테러리즘의 위협 속에서 오늘날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러조직이나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테러전략·전술 의도 및 그 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테러목적(대상), 그리고 테러범들이 동원하는 테러수법·수단과 방법 등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면, 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대중)의 안전과 더불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호행사(작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호정보 역할(기능)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경호정보는 테러에 관하여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고 중요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서(부대)에 제공함으로써 경호정보의 우위를 달성하여 경호행사(작전)의 성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호정보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리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테러 위협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경호정보 역할의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테러리즘에 대한 징후를 판단하고 조기에 테러경보를 제공한다.
- ② 테러조직 및 테러범의 능력과 테러기도, 대테러부대 취약성을 정확히 판단한다.
- ③ 테러에 대한 적시·적절한 첩보 와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한다.
- ④ 테러조직(테러범)이 테러 감행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측한다.
- ⑤ 테러조직이 테러관련 첩보 및 정보 수집하는 것을 방해, 차단토록 지원한다.
- ⑥ 대테러부대(경호원) 및 대중의 안전을 지켜주고 방호한다.
- ⑦ 테러조직(테러범)의 지휘·통제 및 사용하는 무기의 기능방해 및 교란.
- ⑧ 테러범의 테러의도를 저하시키는 심리전 수행.
- ⑨ 테러범들에게 불리한 허위정보(역정보)를 제공하여 기만시켜 테러의도를 포기하도록 한다.
- ⑩ 대테러 작전(행사) 보안을 유지하고, 작전활동을 협조한다.

2. 테러리즘 위협에 따른 경호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방법

1) 경호첩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 방법

테러리즘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호첩보를 수집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지만 먼저 수집자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첩보 수집이란 수집요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의 경호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를 통한 제반 활동결과 첩보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경호첩보 수집계획은 어떤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지는 않는다. 수집요원에 따라 부여받은 첩보의 성질이나 수집 기간에 따라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첩보수집자의 기본적 자세, 수집방법, 정보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의식을 갖는다. 우선 요구되는 테러관련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무한대의 정보 수집은 불가능하다. 실용성과 활용목적에 염두에 두고 수집한다.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모든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보란 결국 활용을 전제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보 수집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93쪽. 정보수집의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은 수집의 목표, 수집의 우선순위, 수집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다.
- (2) 관련 테러정보의 배경을 분석한다. 단 한 건이라도 테러와 관련된 배경을 더 깊숙하게 다각적으로 파악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역으로 테러범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 (4) 테러관련 공개정보를 중시한다. 공개정보에서 결정적인 테러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언론매체나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테러범들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표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의 테러폭파 사건에서도 알카에다 테러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테러의도를 밝힌바 있다.
- (5) 선입견과 고정관념 없이 관찰하고 상식을 뛰어 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주변 도처에서 테러위해 요소가 은닉되거나 잠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만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나친 고정관념은 융통성 없는 사고를 낳기 쉬우며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범위를 뛰어 넘어 조직의 차원에서, 상급자 및 차차 상급자(2-3단계 상급자)차원에서 경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 (6) 테러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경호위해 정보 중에서 자신의 정보 목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7) 사소한 경호정보도 중시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보 하나 하나를 중시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호작전(행사)에서의 실수는 곧 경호대상자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경호작전(행사)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 (8) 언제나 경호현장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경호위해 요소도 현장에 잠재되어 있거나 은닉되어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경호현장을 중심으로 뛰고, 현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9) 언제나 의문을 던져야 한다. “왜?” 라는 물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 즉 상대(테러범)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테러범의 행동과 장소변경에 따른 동선의 행태에 꼬리를 물고 추적하여 테러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태를 읽어내야 한다. 또한 의도한 목표나 행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대비책을 발견할 수 있다.
- (10) 경호환경 변화의 방향과 흐름의 큰 줄기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직간접적인 경호내·외부 환경자체는 물론 국내 및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특히 국제범죄 조직의 활동정보와 정보통신, 과학분야 기술의 발전추세 등 변화하는 방향 및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종합적으로 경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11) 테러조직의 전략·전술을 간파해야 하고, 그들의 테러수법과 수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VI. 결 론

지금까지의 테러는 수행주체를 뚜렷하게 밝히고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뉴테러리즘은 요구조건도 불분명하고 수행주체를 밝히지도 않은 채, 그 피해 수준은 저강도의 전쟁수준을 능가하는 초대형 슈퍼테러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테러는 저격, 폭파, 납치 등을 주로 했다면, 슈퍼 테러는 수단적 의미에서 대량 살상을 포함하는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며, 무엇보다 테러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하여 공포심을 극대화 시키는 극단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오늘날 뉴테러리즘의 주요 위협요인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호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많은 경호위해 요인이 사회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경호주체)에게 테러위협을 가해오는 ‘경호위해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의 위협 속에서 오늘날 국내 및 국제적으로 테러조직이나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테러전략·전술 의도 및 그 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테러목적(대상), 그리고 테러범들이 동원하는 테러수법·수단과 방법 등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면, 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대중)의 안전과 더불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호행사(작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호정보 역할(기능)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경호정보는 테러에 관하여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고 중요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서(부대)에 제공함으로써

써 경호정보의 우위를 달성하여 경호행사(작전)의 성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호정보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리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테러 위협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경호정보 활동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즉 각종 수집수단으로부터 입수되는 경호정보는 대부분 기록, 평가, 해석되어 해당 경호부서(부대)에 전파되며 정보의 성격에 따라 경호 위협요인은 즉시 제거 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대테러 정보활동이 요구되는 첩보 및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기만 및 위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뉴테러리즘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호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수집 및 생산된 경호정보가 적합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 완전성(completeness), 필요성(necessity), 신뢰성(reliance)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경호정보로써 일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경호정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강영숙(2004). 『테러의 이해』. 서울: 백산 출판사
2. 경찰대학(2005).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
3. 국정원(2004).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외국의 테러동향』. 서울: 국정원
4. 국군기무사(2001). 『정보마인드 길라잡이』. 서울: 국군기무사
5. 김재명(2005). 『21세기 국제정치 화두 테러리즘』. 서울: 신동아
6. 문정인(2005).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7. 서정원(2004). 『생물테러 독물전쟁』. 서울: 월드사이언스
8. 유일용(2004). “테러리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9. 육군본부(2003). 야전교범 30-11 『전장정보분석』. 대전: 육군본부
10. 이두석(2005). “국제테러리즘 분석 및 전망”. 연구논문
11. 이상철(2005). 『경호현장운용론』. 용인: 도서출판 원
12. 이황우(2002). 『Quasi-Terrorism 의 원인과 예방』. 치안본부
13. 임상곤(2005). 『정보분석론』. 서울: 백산출판사
14. 장명진(2004). 『경호실무』. 서울: 법연 출판사
15. 전형구(2003). “북한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6. 최진태(2003).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17. 최태림(2004). “9.11 전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정책 결정요인 비교”. 서울: 국방대학원
18. Boaz Ganor(2001), Defining Trrorism
19. Sherman Kent (1985), Strategic Intellig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 Walter Laqueur(2000), The New Terrorism: Fanaticism and the Arms of Mass Destrucyion
21. 조선일보(2005), 2005. 3. 17
22. 조선일보(2005), 2005. 7. 8, / 11. 25
23. <http://www.washingtonpost.com>, 2005. 11. 25
24. <http://www.state.gov>, 2005.11. 23
25. <http://www.yahoo.com>, 2005. 11.23

논문접수일 : 2005년 11월 1일
심사의뢰일 : 200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2월 5일